

성모 마리아 맞아? ... 그림 복원 '참사'



▲ 성모마리아 원래 모습(왼쪽)과 복원 후 모습. 사진=Cedida por Coleccionist

회화와 조각 등의 예술작품은 세월이 지나면 변색 등의 열화 현상이 생겨 복원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복원 작업을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에게 맡겼다가 작품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얼마 전 스페인에서는 한 예술품 수집가가 한 유명 화가의 유화작품 복제화를 아마추어 복원가에게 복원 작업을 맡겼다가 후회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에 사는 한 익명의 예술품 수집가는 자신이 아끼는 한 유명 화가의 유화작품 복제화를 한 아마추어 복원가에게 1,200유로(약 1,500달러)를 주고 복원하도록 했다가 분개하고 말았다.

그가 의뢰한 작품은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대

표 화가인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7~1682)의 유화작품인 '베네라블레스의 원죄 없는 잉태' (Immaculate Conception of Los Venerables)의 정교한 복제화로, 원래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었지만, 복원된 작품에는 전혀 다른 여성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해당 복원가에게 작업을 다시 하도록 했지만, 그 모습은 더욱더 끔찍하게 변했다.

2012년 8월, 스페인 '생츄어리 어브 머시' 라는 이름의 교회에 있던 100년 전 19세기 지역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가 그린 프레스코 벽화 '에케호모' (Ecce Homo·이 사람



▲ 에케 호모 복원 전(왼쪽)과 복원 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을 보라)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시 80세 할머니 세실리아 히메네스가 복원했다가 원숭이 얼굴처럼 그려 놓은 유명한 복원 참사도 유명하다.

당시 해당 벽화는 '비스트 지저스' (Beast Jesus) 혹은 '에케모노' (Ecce Mono·이 원숭이를 보라) 등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치렀고,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념품까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도 너무 커” ... 벨기에 마스크 논란

벨기에의 한 지방도시가 마스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벨기에 알스트시는 최근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 그런데 크기가 문제가 됐다. 공급된 마스크가 얼굴을 거의 다 가릴 만큼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런 마스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 벨기에의 한 도시 시민들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마스크 크기를 조롱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KBS화면캡처

그러자 시민들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서비스(SNS)상에 지지자체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비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팬티 같다”, “낙하산이나?” 등 조롱하는 말로 당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프 다스 알스트시 시장은 “당시 우리로서는 마스크를 확보해야만 했다.”면서 “시 안에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이 적어 주에서 공동 구매라는 수단을 선택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 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주당국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이미 배포한 모든 마스크를 교환해줄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너무 큰 마스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주름을 최대한 늘리지 말고 착용하거나 마스크가 줄어들 때까지 뜨거운 물에 담가라와 같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대책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세정제로 술 만들어 먹은 재소자들



▲ 스페인의 여성 재소자들이 손세정제로 술을 만들어 마시다 적발됐다. 그래픽=타운뉴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술을 제조해 마신 재소자들의 이야기가 화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브리안스우도 교도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과 면회실 등에 비치한 손세정제를 수거했다.

이 교도소에서는 시설 내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면 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손세정제 디스펜서가 금세 비어버리는가 하면 어디에서 구했는지 술을 마신 취한 여자재소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교도소 측은 조사해 보니 재소자들이 마신 건 다름 아닌 손세정제로 만든 엉터리 '사제 칵테일' 이었다.

일단의 재소자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문제의 칵테일은 쿠바리브레를 흉내 낸 것이었다. 쿠바타라고도 불리는 쿠바리브레는 럼주와 콜라를 혼합해 만드는 칵테일의 하나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손세정제가 절대 부족해지자 스페인에선 주류업체들이 술을 만들기 위해 확보했던 알코올을 풀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 안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자 손씻기 보다는 칵테일을 먼저 떠올렸다.

교도소 관계자는 “각 구역에 설치한 알코올 손세정제가 하도 빨리 없어지기에 조사를 하다가 재소자들이 손세정제와 콜라를 섞은 엉터리 칵테일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류업체들이 제공한 알코올을 재료로 손세정제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손세정제는 결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재소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일단은 손세정제를 모두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측은 손세정제 재비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www.suhlaw.com
info@suhlaw.com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of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